

광주공원에 '아시아문화커뮤니티' 조성

174억 투입 테마광장·산책로 등 조성키로

2010년 상반기 완공...노후건물 철거 시작

광주시가 광주공원 인근에 들어설 아시아문화커뮤니티 문화공원(조감도)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노후건물 등에 대한 철거공사에 들어간다.

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보상이 완료된 부지 내 노후건물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해 앞으로 3개월여 동안 철거작업을 추진한다.

아시아문화커뮤니티 문화공원은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 광주공원 생태숲 복원과 함께 광주공원 인근에 들어서는 주제별 공원의 하나로, 오는 10월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토지와 건물보상비에 143억 원과 테마광장, 산책로, 휴게공간, 생태숲 조성 등에 31억 원 등 모두 174억원이 투입된다.

이 공원은 구동체육관 자리에 국비 160억 원 등 총 47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1만5574㎡ 규모로 2010년 2월 완공할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같은 시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71년 조성된 광주공원과 그 주변이 대표적인 녹색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구도심 활

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아시아문화커뮤니티 문화공원에 이어 광주공원 인근에 위치한 광주향교 주변을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광주공원과 광주천 사이의 구 시가지 3천973㎡를 정비해 생태숲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광주시가 광주공원 일대에 1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 때문이다.

박인종 시 공원녹지과장은 "광주공원 주변 국립립 등 산만한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문화와 생태 숲이 살아 숨 쉬는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공원은 지난 1971년 4월 광주의 첫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시민회관과 무진회관, 현충탑, 서오총석탑, 위폐봉암소 등 문화·역사시설, 63종 1만8000그루의 수목들이 우러져 도심 속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시설 노후, 주변 개발 등으로 이용자가 노인층에 한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아시아 다문화 커뮤니티 공원



농업인 법률·세무 분쟁 상담 받으세요

지역 농협본부 서비스

각수록 전문화되는 농업 경영 여건에 맞춰 농업인을 상대로 법률, 세무, 노무 등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반기 중 시·도의 농협 지역본부, 농업 인회관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은 법률, 세무 분쟁이 발생하면 개별

경업체가 직접 변호사나 세무사를 고용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농업인단체나 농협을 통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10~11월께 농협

민주 김재균 의원, 올 광역경제권 사업비 분석

정부가 주진 중인 '5+2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영·호남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에 따르면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 예산 협의내역'을 분석한 결과, 호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382억 원으로 영남권 656억 원(동남권 336억원, 대경권 32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 프로젝트도 호남권은 ▲ 동북아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 서남 해안 해상풍력산업 하브 구축사업 ▲ 고효율 저공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 ▲ 친환경 광기술 기반 융합 부품·소재산업 육성 사

업 등 총 4건에 그친데 비해 영남지역은 동남권에서 그린 카오발트 구축 사업 등 4건과 대경권의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하브 구축 사업 등 4건으로 총 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5+2 광역경제권'이 설정될 때 제기됐던 예산 2배, 사업 2배에 따른 영·호남 격차 심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낙후지역의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됐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영남에 집중돼 영·호남 격차를 부채질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06~2008년 균특예산 국비·지방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균특예산이

부산에 1천139억원, 대구 1천113억원을 지원한 반면 광주는 898억원에 그쳤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의 경우 균특예산이 영남권에 1천177억 원이 지원된 데 비해, 호남권은 596억 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비율도 영남은 49.7%지만 호남은 60.8%로 10% 넘게 차이 나, 호남지역 자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우려됐던 예산 2배·사업 2배가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호남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광주경제는 암담해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이 5+3 체제로의 조속한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한밤중 문여는 약국 인터넷서 찾는다

네이버·다음 등서 안내

앞으로 공휴일이나 야간에 약을 사기 위해 약국을 찾아 해매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상이사 회를 열고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 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영업시간이 끝난 뒤 실시간 당번 약국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시스 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전화 1339)와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를 통

해 당번약국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휴일이나 야간에 갑자기 약이 필요한 시민들이 약국을 찾지 못해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약사회는 약국의 컴퓨터가 부팅될 경우 자동으로 약국의 문을 열었다는 정보가 당번약국 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이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서버구축과 웹사이트 개발 등 준비과정을 마치고 시험운영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초부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영광 파프리카 온실 방문

카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지난 4일 오후 영광군 염산시설체조영농법인을 방문해 파프리카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대통령 유럽순방 내일 출국...교황 접견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교황 접견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2002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7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에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만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오는 9일 교황을 예방할 예정"이라며 "교황은 세계 범기독교계의 정신적 지도자인 만큼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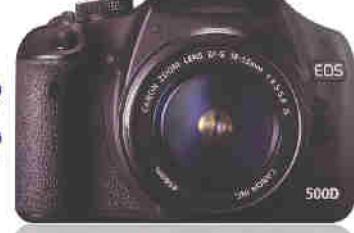
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영면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고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m@kwangju.co.kr

Canon 호남총판 OPEN 기념 특가판매

이제 전문매장에서
캐논 정품을 판매하세요!

Full HD EOS 500D DSLR



사진으로 소유할 것인가?
영상으로 소유할 것인가?

Full HD 고화질 동영상 촬영

- ▶ 1510만 화소 CMOS센서
- ▶ DIGI4 이미지 프로세서
- ▶ ISO 3200 고감도 촬영 지원(확장시 12800 지원)
- ▶ 3년치 92만도 대형 클리어뷰 LCD(3종 구조 빙하시방지 기능)
- ▶ 편리한 촬영을 위한 라이브뷰 기능(얼굴 자동 인식)
- ▶ 크리에이티브 전자동 촬영 모드 및 셋팅 지원
- ▶ 렌즈 주변 조도 보정 기능
- ▶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구입문의 062)350-8397

(주)HD코리아 광주시 서구 금호월드 1층 정문입구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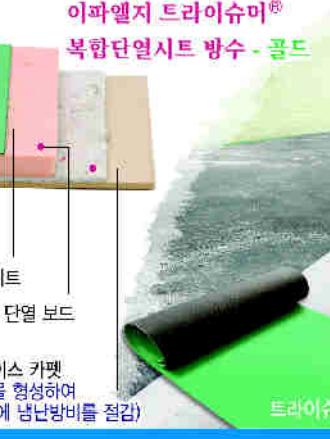
IPALG 종합특수방수

방수와 단열이 하나로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896503호)

IPALG 트라이슈머 복합단열시트 방수공법

1. 방수 뿐 아니라 뛰어난 단열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2. 보행성이 탁월하고 옥상바닥소음을 없애줍니다.
3. 이중방수효과로 견고한 복합방수층을 형성합니다.
4. 시공 바닥면의 진행성 크래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 옆에 강해서 태양열에 의한 변형이 적습니다.
6. 계절과 상관없이 전천후 시공이며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7. 신축건물에도 적합한 최고의 방수공법입니다.
8. 선진국형 친환경 방수공법입니다.



홈/폐/이/자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목포지점 (061)284-0485 순천지점 (061)726-0482

여수지점 (061)683-0485 광양지점 (061)795-0485